

#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 Determinants of Fathers' Child Care Time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소비자학과  
객원교수 및 강사 허경옥

Univ. of Wisconsin-Madison Dept. of Consumer Science  
*Visiting Professor and Lecturer; Kyungok Huh*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men's time allocation in child care. A multidimensional theoretical approach employing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efficiency, time availability, and role ideology was employed to explain variations i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In addition, the effects of several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investigated.

The sample was drawn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conducted in 1987-1988 by the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was significantly supported, and the economic efficiency perspective was partially supported.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evidence was found for the effect of role ideology on fathers' child care time. Overall, demographic variables had a nonsignificant effect (except in the case of age) on the amoun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I. 서론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취업의 증가에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

업구조의 변화(서비스산업 확대) 및 자녀 수의 감소, 보다 나은 물질적, 경제적 생활 수준에의 욕구, 여성의 자아 실현 욕구 등으로 가속되어 왔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에의 남편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종래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현대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자녀 양육의 공동적 책임인식, 자녀들과의 많은 시간 공유 등 보다 적극적인 자녀 양육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LaRossa, 1988; Pleck, 1987). 변화된 현대의 아버지상은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남편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요구되어 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편의(이하 연구에서 부)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Hiller & Philliber, 1986; Hochschild, 1989; Model, 1981; Scarr, Phillips, & McCartney, 1989). 이 연구 결과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의 참여 시간은 부 개인의 선택 또는 개별적 차이임을 시사하고 있다(Cherlin,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시간을 소비하였는지 또는 어떤 사회 가정적 환경이 시간의 소비량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소비를 설명하는 세가지 이론을 도입 설명하고 또 그 효과를 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정 요인을 조사한다.

## II. 이론적 배경

많은 연구자들이 가사 노동 및 양육에의 시간 소비에 대한 이론을 전개, 또 그 효과를 검증하여 왔다.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세가지의 이론은 경제적 효율 가설(Becker, 1974; Berk, 1980; Berk & Berk, 1978), 이용 가능 시간 가설(Bergen, 1990; Blood & Wolfe, 1960; Model, 1981) 그리고 역할 관념 가설(Barnett & Baruch, 1987; Coverman, 1985; Mchak & Huston, 1984)이다. 이 가설들의 효과를 검증하므로써 부가 자녀를 기르는데 소비한 시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 1. 경제적 효율 가설(Economic Efficiency)

이 가설은 신 가정 경제학파의(New Home Economics) 시간 배분 이론에서 파생,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어떠한 일의 시간 소비량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하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의되어 진다(Becker, 1974; Berk, 1980). 이 관점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일의(예: 시장 노동, 가사 노동, 육아에의 노동, 여가) 시간 소비량은 가족 전체의 최고 효용을 얻기위해 경제적 효율성 또는 성과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을 도입, 노동 시장내에서의 효율성 즉 시간당의 임금으로 측정되어져 왔다. 이 가설을 본 연구의 과제에 적용하면,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 또는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가정 내에서의 노동보다는 노동 시장에 더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가정되어 진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부가 모에 비해 자녀 양육에의 소비 시간이 적은 것은 부의 임금이 배우자인 모보다 높기 때문이다(Becker, 1974; Farkas, 1876). 다시 말해, 부의 자녀 양육에의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은 배우자인 모의 기회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그의 자녀 양육에의 시간 소비는 배우자인 모보다 적은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을 확대 적용한 학사들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 등을 기본으로 자녀 양육에의 효율성 또는 성과가 남성보다 높으므로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기르는데 소비한다고 하였다(Becker, 1974).

### 2. 이용 가능 시간 가설(Time Availability)

이 가설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용 가능 시간이 많은 사람인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자녀의 양육에 소비한다는 것이다(Berk, 1985; Blood & Wolfe, 1960; Condran & Bode, 1982; Model, 1981). 다시 말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경우 양육에의 시간 소비는 적어진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용 가능 시간의 정도는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상태(예: 전업취업, 부분취업, 비취업) 또는 주당의 노동 시간으로 측정되

어 졌다(Bergen, 1990). 그러나 이것들은 부의 이용 가능 시간을 측정하기에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은 기혼부들의 취업 상태는 전업 취업상태(풀타임 고용)이며 주당 노동 시간에도 커다란 차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간의 융통성의 개념을 도입, 이용 가능 시간을 측정한다. 현대 사회(특히 미국 사회)에서 비전형적 근로 방법인 아침 저녁 순환 근무(Shift Work), 주 4일 근무, 또는 가정에서의 근무(예: 컴퓨터 관련 업무)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같은 근로 방법 또는 노동 시간의 융통성의 효과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Nock & Kingston, 1988; Staines & Pleck, 1983; Presser, 1986). 이 가설에 따르면 근로 시간의 융통성이 높은 경우 이용 가능 시간은 많다는 전제하에 자녀 양육에의 소비 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 3. 역할 관념 가설(Role Ideology)

이 가설은 역할에 대한 관념이 양육에의 시간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arnett & Baruch, 1987; McHale & Huston, 1984; Ross, 1987). 역할 관념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부일수록 자녀 양육에의 참여는 소극적으로, 자녀 양육 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통 역할 관념은 기혼 여성의 취업, 부모의 역할, 남성의 가사 노동에의 참여 등에 관한 관념적 사고에의 보수성 및 전통적인 사고관의 정도로 측정되어져 왔다.

위의 세가지 이론을 본 연구의 목적에 응용하여 세워진 가설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효율 가설 - 고 임금율을 가진 부일수록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은 감소한다.
- ② 이용가능 시간 가설 - 부의 근로시간에 융통성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은 증가한다.
- ③ 역할 관념 가설 - 역할에 관해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부일수록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은 감소한다.

## Ⅲ. 연구방법

### 1.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198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매디슨)내의 연구 및 생태국에서(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실시한 전국 가족 및 가계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and Households)이다. 이 조사는 5년 마다(2차 조사는 1993년 실시)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패넬 조사으로써 가계 특성, 가계 소득 및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시간 소비 분배 등 가정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로써 응답자와 응답자의 배우자가 각각 조사에 응했으며, 아동 가족 사회 가정 경제 소비자 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귀중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전국 모든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적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조사자는 13,017명이었으며, 조사 가족은 9,643가족이었다(Sweet, Bumpass & Call, 1988).

### 2. 표본 구조

본 연구의 목적인 부의 자녀 양육 시간의 결정적 요인을 찾기 위해 결혼후 자녀를 가진 양부모 가정이 추출되었다. 많은 선행자료 및 조사에서 기혼 모가 그의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 양육 시간을 대신 응답하는 것과는 달리 이 조사에서는 한 가정 내에서 부부 모두가 각자 자신의 시간 소비량을 응답하였으므로, 부의 시간을 조사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부와 모는 각기 그들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한 자녀만을 임의로 선택(Focal Child)하여 그 자녀를 기르는데 소비한 시간, 양육과 관련된 노동에의 시간 등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총 표본수는 1,628이었다.

### 3. 종속 변수

부의 자녀 양육 시간은 세가지의 양육을 위한 노동 시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이 세가지는 (1) 집 안에서의 놀이 시간, (2) 집 밖에서의 공유 시간으로 공원, 동물원, 박물관 소풍 등의 나들이 및 음악, 영화, 스포츠 등의 공유 시간, (3) 지적 발달을 위한 시간으로 자녀와의 독서 시간나 학교 과제물 등을 돌봐주는 시간이다. 조사 방법은 위의 3가지 활동에 소비한 빈도수로 측정되었는데 6가지 응답 선택은 주당의 시간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전혀 (0점)
- ② 한달에 1번 정도 (0.25점)
- ③ 한달에 여러번 (0.75점)
- ④ 1주일에 1번 (1점)
- ⑤ 1주일에 여러번 (3점)
- ⑥ 거의 매일 (7점)

이 3가지 시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0.72$ 로써 내적 일치성은 믿음만한 척도로 인정되었다.

### 4. 독립 변수

독립 변수들은 3가지 이론에서 유출된 대용변수들이다. 이때 부의 배우자인 기혼모의 특성들도 부의 자녀 양육 시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독립 변수로 이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게다가 사회 인구적인 변수들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본 연구의 취지인 결정요인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추가되었다.

#### ① 경제적 효율

시간당의 임금(\$)으로써 비취업의 경우는 0으로 점수화되었다.

#### ② 이용 가능 시간

근로 시간의 융통성의 정도으로써 Staines과 Pleck (1983)의 개념을 도입 3가지 측면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질문 문항은 “근로 시간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다른가?”, “근로 시간이 밤과 낮으로 바뀌 가면서 짜여져 있는가?”, “가정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도 있는가?” 응답 선택은 예, 아니오로 주어졌으며, 이 세가지 문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로 대답되었을 경우는 1로 점수화 되었고, 모두 아니오의 경우는 0으로 점수화 처리된 가변수로 이용되었다. 내부적 일치성을 나타내는 Cronbach  $\alpha=0.52$ 였다.

#### ③ 역할 관념

5가지의 질문이 역할에의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사고관을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a) 기혼부는 직장에서 일하고 기혼모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
- b) 기혼모의 직장 생활은 취학전 아동에게 여러가지로 좋지 않다.
- c)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노동은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 d) 어린이들에게는 계모, 계부보다 친부, 친모를 가진 경우 여러가지로 좋다.
- e) 딸이나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질문 문항 a), b), d) 대한 응답 선택에 있어서 “강하게 동의한다”에 1점, “동의한다”에 2점, “중간이다”에 3점, “동의 안한다”에 4점, “절대 동의 안한다”에 5점을 주었다. 질문 문항 c)와 e)의 경우는 질문 문항 a), b), d)의 경우와는 반대로, 강한 동의인 경우 5점, 강한 비동의의 경우는 1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이때 5개 질문항의 평균값이 저값일수록 보수적 또는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대표된다.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보는 Cronbach  $\alpha=0.51$ 로써 받아들여질 만 하다.

#### ④ 사회 인구적 변수들

기혼부의 특성인 교육 수준, 직업, 인종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교육 수준은 총 교육 년수로,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1로 비전문직의 경우는 0으로 처리된 가변수으로써, 그리고 인종은 흑인의 경우는 1로, 비흑인은 0으로 처리된 가변수으로써 이용되었다.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의 성별(남아 1, 여아 0)과 자녀의 연령이 사용되었다.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추출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기혼부의 시간당 임금은 약 \$10, 기혼모는 \$4이었다. 기혼모의 임금이 기혼부보다 격심하게 적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비취업자의 경우는 0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기혼부의 11%(N=288)가 근로 시간의 융통성이 있었고, 기혼모의 4%(N=105)가 역시 융통성 있는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기혼부가 기혼모보다 더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혼부의 평균 교육 연수는 13년이었으며, 48%(N=507)가 전문직 종사자였고, 13%(N=341)가 흑인, 그리고 평균 연령은 36세였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7세 그리고 49%(N=1,285)가 남아였다.

### 2. 이론의 검증 및 결정 요인 결과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가지의 가설과 사회 인구적 변수들의 효과를 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는데, 기혼모의 임금률, 기혼부와 모의 근로 시간의 융통성, 부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연령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① 경제적 효율 가설 검증 결과

경제적 효율성의 검증 결과 그 효과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기혼부 자신의 임금률은 그 자신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적인 효과로써, 기혼부의 배우자인 기혼모의 임금률은 기혼부의 자녀 양육 시간에 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률이 높은 모가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그녀의 자녀 양육 시간이 감소되어 그의 배우자인 기혼부의 자녀 양육에의 책임이

<표 1> 표본의 특성

변 수	총 표본수 (N)	평 균 (M)	표준 편차 (SD)
경제적 효율성 (\$)			
부의 임금률	2,064	9.89	9.86
모의 임금률	2,391	4.02	6.19
이용 가능 시간(융통성=1)			
부의 근로시간 융통성	2,622	0.11(N=288)	0.32
모의 근로시간 융통성	2,622	0.04(N=105)	0.21
역할 관념			
부의 역할 관념	1,078	3.12	0.57
모의 역할 관념	983	3.36	0.60
사회 인구적 변수들			
부의 교육연수	1,153	13.11	3.03
부의 직업(전문직=1)	1,056	0.48(N=507)	0.50
부의 인종(흑인=1)	2,662	0.13(N=341)	0.34
부의 연령	2,316	35.76	8.37
자녀 연령	2,662	7.35	5.71
자녀 성별(남아=1)	2,662	0.49(N=1,285)	0.50

〈표 2〉 중회귀분석 결과(N=1,628)

변 수	총 표본수 (N)	평 균 (M)	표준 편차 (SD)
경제적 효율성 (\$)			
부의 임금률	0.006	0.011	0.186
모의 임금률	0.053**	0.65**	6.544
이용 가능 시간(용통성=1)			
부의 근로시간 용통성	2.033**	0.135**	29.892
모의 근로시간 용통성	1.131*	0.050*	4.003
역할 관념			
부의 역할 관념	0.197	0.021	0.604
모의 역할 관념	0.398	-0.045	2.672
사회 인구적 변수들			
부의 교육년수	0.076	0.042	2.042
부의 직업(전문직=1)	0.362	0.035	1.483
부의 인종(흑인=1)	-0.193	-0.011	0.206
부의 연령	-0.049*	-0.078*	4.563
자녀 연령	0.105**	0.115**	10.102
자녀 성별(남아=1)	0.574	0.046	3.549
Intercept	9.363**		59.678
Multiple R	0.206		
Adjusted R square	0.035		

\*\* P&lt;.01 \* P&lt;.05

증가, 참여 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자녀 양육이 전통적으로 모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온 바, 부의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의 차이는 부의 양육에의 참여 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 ② 이용 가능 시간 가설 검증 결과

이용 가능 시간 가설은 그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혼부 자신과 그의 배우자인 기혼모의 근로 시간 용통성이 부의 자녀 양육에의 시간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혼부의 시간 용통성이 많을 경우 그의 양육에의 참여시간은 증가되는 것으로 이용 가능 시간 가설과 잘 부합되는 결과이다.

#### ③ 역할 관념 가설 검증 결과

역할 관념 가설의 검증 결과 역할에의 관념은 부의 자녀 양육을 위한 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와 행동상의 불일치 또는 부관함을 나타낸다. 많은 학자들이 정신적 사고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역할 관념의 측정상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다. 면접 또는 설문지 조사에서 많은 기혼부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실제 자신의 관념이 아닌 바람직한 사고관으로 생각되는 것으로(social desirability) 거짓 응답했을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예 : Bergen, 1990) 널리 이용되어진 방법이나, 여전히 역할에의 관념을 측정하기에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후속 연구에서 좀더 정확한 측정 방법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④ 사회 인구적 변수의 효과 검증 결과

사회 인구학적 변수중 부의 교육수준, 인종, 직업

과 자녀의 성별은 부의 양육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부와 자녀의 연령만이 큰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예 : Coverman, 1985) 결과와 일치하게, 젊은 아버지일수록 그들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과 부의 양육 시간과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양육을 위한 활동(예 : 학업을 도와 주는 활동, 소풍 및 기타 야외 활동) 주로 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활동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가 자녀들 중 어느 한 자녀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자녀와의 시간에 대해 조사되었으므로, 부가 그들의 자녀 중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한 자녀를(아마도 연령이 높은 자녀) 선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인 효과나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의 자녀 양육 참여에의 시간 소비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3가지의 가설을 도입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와 모의 근로 시간의 융통성, 모의 임금률, 부와 자녀의 연령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 시간을 설명하는 이론중 이용 가능 시간 가설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었고, 경제적 효율 가설도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역할 관념 가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의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이 그의 배우자인 모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모의 근로 시간 융통성과 임금률이 부의 자녀 양육에의 소비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약점으로 부의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계층, 문화적 차이, 사회적 친족 관계, 가족 구조 및 지배적인 사회 전체의 인식 등의 변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질적인 요인들인 직업상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의 부조화, 과중한 직장 업무, 직업의 만족

도 등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자녀 양육에의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Barnett, R. C., & Baruch, 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2) Becker, G. S.(1974). A theory of marriage :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s11-s26.
- 3) Bergen, E.(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NSFH working paper, No.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4) Berk, R.(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113-148. Beverlyhills, Sage Inc.
- 5) Berk, R. A. & Berk, S. F.(1978).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for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6, 431-468.
- 6) Berk, S. F.(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 NewYork: Plenum Press.
- 7) Blood, R. O.,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York, The Free Press.
- 8) Cherlin, A.(1988).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Press.
- 9) Condran, J., & Bode, J.(1982). Rashomon, working wives, and family division of labor : Middle-tow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421-426.
- 10)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87.
- 11) Farkas, G(1976). Education, wage rat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3-440.

- 12) Hiller, D. V.(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s*, 10, 1003-1019.
- 13) Hiller, D. V. & Philliber, W. W.(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 191-201.
- 14) Hochschild, A.(1989). *The second shift*. NewYork : viking.
- 15)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Chicago : Aldine, 111-142.
- 16)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Chicago : Aldine, 111-142.
- 17)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4, 451-457.
- 18) McHale, S. M., & Huston, T. L.(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19) Model, S.(1981). Housework by husbands :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225-237.
- 20) Nock, S. L., & Kingston, P. W.(1988). Time with children :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 21) Pleck, J. H.(1987).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M. S. Kimmel(eds), CA : Sage.
- 22) Presser, H. B.(1986). Shift work among American women and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51-563.
- 23) Ross, C. 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24) Scarr, S., Phillips, D., & McCartney, K.(1989).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4, 1402-1409.
- 25) Staines, G. L. & Pleck, J. H.(1983). *The impact of work schedules on the family*. Univ. of Michigan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26) Sweet, J. A., Bumpass, L. L., & Call, V. R. (1988).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Working Paper No. 1. CDE, Univ. of Wisconsin-Madison.